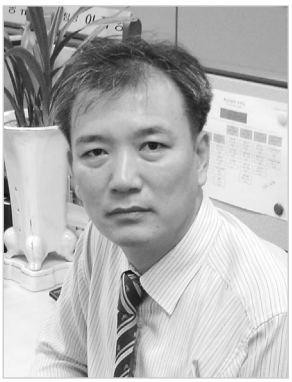
산란계 의무자조금 활성화 방안

산란계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산업발전의 돌파구를 찾자



이 제 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양계팀장

축산자조금의 현황

축산자조금의 역사를 보면 1992년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거출되었으니 어언 2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간 대한양계협회에서 임의자조금을 거출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던바 비록 양계자조금의 액수는 적었다 할지라도 사용에 있어서는 남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알찬 씀씀이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무임승차라는 임의자조금의 한계가 있었기에 1998년 6월 농협중앙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가 공동으로 정부에 축산물의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법제화를 건의한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2002년 5월 13일에 비로소 '축산물의소비촉진에관한법률' 이 공포(2002년 11월 14일 축산물의소비촉진에관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2006년 12월 28일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개정 공포)되어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2004년 4월에 양돈자조금이 출범하게 되었다. 다른 축종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양계부문에 있어서는 육계자조금이 아직까지도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고, 산란계자조금은 그간 사료에서 거출하느냐 병아리에서 거출하느냐 하는 논의가

표1. 축산자조금 도입현황

(단위 : 억원)

축 종	한 우	낙 농	양 돈	계
2009 조성액	203	88	160	451
도입년도	2005.5	2006.5	2004.4	

지속되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안타까웠다. 그 사이에 2005년 5월에는 한우자조금이 그리고 2006년 5월에는 낙농자조금이 도입되어 활발한 자조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때에 다행히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7일 산란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올 1월 대의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아 대의원 입후보를 하는 등 오는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망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그간 가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사업 추진과 산란계 자조금 도입 필요성

잘 알다시피 정부에서는 2001년 양계산업의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양계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다. 시드머니 500억원으로 출범하면서 2004년에는 750억원으로 증액하여 오리를 포함해 가금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해왔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산조절, 소비홍보, 수출지원, 조사연구와 농가계도 등으로 그 중에서도 2003년 12월 HPAI 발생 후 매년 반복된 AI대책사업이 양계산물의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왔다. 또한 구구데이를 매년 정례화시켜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를 높여 왔으며, 가금산물 가격 하락기에는 TV등에 가금산물을 노출시켜 소비촉진을 도모하여 온 것도 큰 효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5년 정부 농림사업 투융자 평가결과 이러한 가금수급위사업은 현행 자조금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며,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수급안정자금도 지원되고 있어 중복지원문제가 발생되어 2007년부터 신규지원을 중단키로 하고, 지난 2007년 4월에 시드머니가 반납됨에 따라 그 운용수익금으로 사용되어 온 수급안정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2009년 올 해 사업으로 책정된 13억원의 잔여예산이 전부이며,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앞으로는 수급안정사업의 재원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그간 수급위사업과 자조금사업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중복되어 지원되기 보다는 단일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양계 이외의 타 축종은 의무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되어 결국 양계도 의무자조금을 통한 수급안정 등 소비촉진을 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더 늦기 전에 산란계에 있어서도 의무자조금을 조속히 도입하여 산란계산업의 안정과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의 실익 증대를 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은 그 어느 활동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2월 16일은 산란계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

여타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으

며, 각각 그 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의 인식이 새로워지는 등 자조금 사업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의 비선호부위를 '웰빙부위'로, 또 한우는 '이 땅위의 자존심'을 호소하기도 하고, 우유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춘향전 패러디'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에도 계란에 대한 TV 광고가 보이지 않아 이만저만 아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계란의 소비를 위해서는 소비를 주도하는 여성들에게 계란의 안전성과 다양한 가공품을 선보이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

이미 그간 수급위사업이나 임의자조금으로 실시한 산란계자조금사업도 TV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나 라디오 광고의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익히 경험하였다. 그러나 연간 국민 1인당 계란의 소비는 아직도 200개 남짓에서 증가하지 않고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육수수가 늘어나고 생산에 따른 공급이 많다면 결국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생산자의 손실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따라 주면 된다. 그 소비를 확대하고 촉진 시켜나가는 방안은 결국 생산자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마련하자는 것이 산란계자조금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속히 자조금 거출에 들어가야 한다.

더욱이 산란계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가에서 자조금이 거출되는 만큼의 정부자금이 지원되기에 이제는 산란계산업도 산업규모에 걸 맞는 자조금을 거출하여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 계란의 우수성과 고품질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농가들이 기울이는 노력을 바로 알려야 하고 또 반드시 소비확대를 이끌어내야 하겠다.

농가에 바라는 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무엇보다도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산란계자조금을 도입하기 위해 이번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 49개 선거구(투표소는 지역축협 및 양계축협)에서 치러지는 대의원선거에서 반드시 8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산란계자조금 도입의 첫발이 대의원 선출이며, 대의원회에서 거출여부와 거출금액을 결정하고 또 관리위원도 위촉하여 늦으나마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출에 들어가야 한다.

아직도 소비자들은 계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나 책자를 통해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들이 전달되지만 하나하나 바로 대응해 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에 이제 자조금사업을 통해 계란을 바로 알리는데 우리 산란계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매진해 나가야 한다.

연간 국민 1인당 계란소비량을 보면 이스라엘이 330개, 일본이 300개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의 계란소비량은 고작 200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계란 소비량보다 20%를 더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1인당 소비량은 250개가 될 수 있고, 산란계 사육마리수도 6천만수를 넘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우리 농가들이 능력껏 채산성 있게 생산하고, 계란의 우수성을 바로 알린다면, 그에 따른 자조금사업의 효과는 농가소득으로 돌아와 2배, 3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양계